

‘아노크라시’ 격화...대한민국 ‘내전 안전지대’ 아니다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버라 F. 월터 | 열린책들 | 2만2000원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을 습격하고 검거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다. 극단적 사상을 지닌 이들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 행사는 내전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한다.

민주주의가 확고한 안정성을 지녔다는 믿음이 오판이었다고 일갈하는 책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인 바버라 F. 월터는 전 세계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조망하며 내전은 더 이상 중동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의 얘기만이 아닌,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국가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됐다고 설파한다.

실제 지난 20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발한 내전 횟수는 그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저자는 최근 벌어지는 내전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발생했던 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간헐적인 테러 행위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등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라고 꾸짖는다. 이 중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에는 ‘아노크라시’ (Anocracy)로의 추락이 있다.

‘아노크라시’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아노크라시’ 현상을 부추기는 사건들이 국내 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6일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습격했던 사건도 이러한 ‘아노크라시’ 현상

의 일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극우단체와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는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저자는 수십년간 탐구해 온 내전, 정치적 폭력, 테러리즘 분야를 바탕으로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조망하고 사회적 분열과 파벌화, 극단주의

의 심화시킨 요인을 분석했다.

앞서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폭력의 유력한 결정 요인은 한 집단의 정치적 지위의 궤적이다. 손아귀에 들어온 권력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위 격화’라고 지칭한다.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누가 폭력을 행사할지 예측하는 방

법으로도 여겨진다.

2010년대 이래 민주주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국가보다 내려가는 국가가 더 많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부유한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퇴보가 나타나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퇴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만 한다. 소셜 미디어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게 하는 정치인들의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 끊임없이 생산돼 퍼져 나가는 가짜 정보들은 제도에 대한 공격은 물론 언론, 독립적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가짜 정보를 활용해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법질서를 강조하는 극우파 후보가 당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가짜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일부 유권자들에게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설득해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노크라시’로의 추락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 이념에 따른 양극화가 극에 치달은 대한민국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대한민국 SF의 새로운 척도...미래 세계로 현대 사회를 꿰뚫다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 래빗홀 | 1만7500원



대한민국 SF 문학사를 새로 쓴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이 화제다. ‘너의 유토피아’는 정보라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으로 지난 2021년 출간된 ‘그녀를 만나다’의 개정판이다.

앞서 지난 10일 세계 3대 SF문학상으로 알려진 필립 K. 디크상 후보작에 포함돼 화제를 일으킨 이 책은 암담한 세계의 모순을 들춰내면서도 더 나은 세계로의 성장을 다룬다.

이 소설집은 1912년 ‘일제가 망해도 우

리만은 영생불사’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설립된 연구소의 98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생불사 연구소’, 식인병이 창궐한 지구를 떠나 ‘노아의 방주’를 타고 우주로 헤매는 여정을 보여주는 ‘여행의 끝’ 등 총 여덟 편의 소설로 구성됐다.

정보라 작가의 소설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정교한 스토리텔링보단 거친 문체와 오스스한 분위기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특유의 몰입감이 특징이다.

“장르소설은 대중소설이고, 재밌어야 하며 교훈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작가의 철학과 의도가 이번 소설집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특히 대담한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 세계의 이야기는 현대를 관통하는 주제와

의식이 결합해 깊은 사유를 남긴다. 치졸하고 암담한 세계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 모두에게 울림을 선사한다.

한편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러시아·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거쳐, 인대아나대에서 러시아학과 폴란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소설집 ‘저주토키’, ‘여자들의 왕’, 장편소설 ‘문이 열렸다’, ‘죽은 자의 꿈’, ‘붉은 칼’ 등을 펴내며 국내 SF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영문판이 발간된 ‘너의 유토피아’는 미국 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책에 선정되며 국내 SF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찬 기자

양심

최재천·팀최마존 | 더클래스 | 1만8000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잊히고 있던 양심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팀최마존이 제작한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해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책의 저자인 최재천 교수는 양



세상에 버릴 열은 없다

정혁준 | 펍트스토리 | 1만6000원

IMF라는 최악의 시기, 기업이 정신을 발휘해 이를 극복한 인물들의 삶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폐업 회사 기업 ‘필러선 테코’의 이주선 회장은 1979년 제우개발을 창업한 뒤 자체 기술로 농축기, 건조기 등을 제조하는 제우기계를 설립했지만, IMF 외환위기를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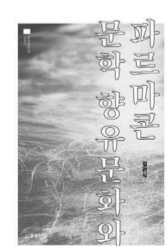
심을 단순히 도덕적 덕목으로 다루는 게 아닌,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제시한다. 그동안 탐구해 온 생태학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사회적 양심이란 무엇인지 철학적인 관점으로 통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최 교수는 동물행동학과 진화생태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최재천의 아마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연과 인간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있다.

하지 못하고 1999년 폐업했다. 그의 재기 비결이 ‘피벗’이라는 점은 현재 젊은 창업가와 직장인들에게도 통찰을 준다. ‘피벗’이란 중심점이나 축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략적 결정을 뜻한다. 이 책의 저자인 현직 한겨레 기자 정혁준 작가는 “한국의 젊은 직장인과 창업가들에게 겪이지 않은 의지를 가진 한 경영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글 쓰는 이들을 향한 ‘문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학 향유문화와 파르마콘

김관식 | 명성서림 | 1만2000원



김관식 시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문학평론집이 최근 출간됐다.

김 시인에게 시를 쓰는 행위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생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지만, 정신이 부패해 생물학적 생명 활동을 지속할 때 풍기는 악취는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회에서 방부제를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글을 쓰는 작가와 시인들이

다. 작가와 시인들은 자신의 혼을 담은 글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인의 설명이다.

이번 문학평론집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문학 향유문화의 역사와 향토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 문학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탐구하고 2부에서는 각종 동시와 시집들에 대한 평론이 이어진다.

그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정신적인 산물인 문학마저 놀이문화로 변질돼 물질문화로 변형됐다고 지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문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구시대적인 발상일지 모르지

만, 문학의 본질과는 정반대의 문학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는다.

김 시인은 이번 문학평론집 출간에 앞서 “메아리를 불러내듯 산에 올라 ‘야호!’ 하고 외치면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버릇처럼 평론집을 펴낸다”며 “글 쓰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뜻에서 작품 평들을 모아서 엮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하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작가는 1954년 나주에서 태어나 1976년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서 입상해 등단했다. 이후 동시집인 ‘토끼 자국’, 시집 ‘집’, ‘가루의 힘’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왔고 문학평론집 8권을 펴냈다.

박찬 기자

시로 채우는 내 마음 필사노트

황인찬 외 59인 | 참비 | 2만원

어느덧 늦겨울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50여년간 한국 시단을 이끌어온 명구절들을 읽고 시 쓰기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뜻깊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시인 60인이 그리움, 사랑, 휴식, 위로 등 다양한 감정을 따라 100가지 시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10부로 구성된 필사 노트다. 독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필사하며 언어 세계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SNS에 어떤 문장을 써야 본인이 느

끼는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노트는 잊힌 감정을 일깨우고 나만의 글을 찾는 여정을 선사하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